

재인식의 설득력 떨어져도 반박은 합당?

머리말에서부터 마르크스는 프루동을 비판다. 프루동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오해당하는 불행을 맛보고 있다”는 지적이 그렇다. 프랑스에서는 “그를 아주 유능한 독일철학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루동 씨는 실력 없는 경제학자여도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그를 가장 유능한 프랑스 경제학자들 중의 하나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루동 씨는 실력 없는 철학자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단행본을 비판한 단행본은 우리 출판에서도 드물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베스트셀러가 비판의 표적이다. 1990년을 전후로 단행본을 통한 자본과 노동의 격돌이 있었다. 박노해의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노동문학사, 1989)는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영사, 1989)를 전면 비판한 책이고, 이성태의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민맥, 1991)은 정주영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제삼기획, 1991)를 비판한 책이다. 노동자의 재벌비판서는 판매량이 재벌총수의 책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자본과 공통된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 1993)와 이 책을 염두에 둔 서현섭의 『일본은 있다』(고려원, 1994)는 나란히 흥한 예외적인 경우다.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 1999)의 대항마로 나선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시아출판, 1999)는 찬찬 속 태풍에 그쳤으며, 도올 김

최성일 · 도서평론가

단행본을 비판한 단행본은 우리 출판에서도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 『해방 전후시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의 인식을 거대한 책으로 해방 전후시를 보는 시각의 한결한 차이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화제가 되었다. 이 두 책이 다른 점은 해방 전후시의 재인식은 섣부름이 떨어지는데 비해 현대의 미신에 대한 반박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2006 04 April

2006 04 April



전여욱의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 1993)

전여욱의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 1993)와 이 책을 염두에 둔 서현섭의 『일본은 있다』(고려원, 1994)는 나란히 훑힌 예외적인 경우다.



서현섭의 『일본은 있다』(고려원, 1994)

용옥을 비판한 어느 단행본은 비판 대상의 거친 말씨만큼이나 험한 표현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06년 2월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박지향 외 엮음, 책세상)와 웬델 베리의 『삶은 기적이다—현대의 미신에 대한 반박』(박경미 옮김, 녹색평론사)은 어떤 책의 주장에 대한 반론임을 분명히 한다. 다른 점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 비해 현대의 미신에 대한 반박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해전사’를 겨냥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해방전후사의 인식(전6권)』(한길사, 1979~1989)을 겨냥한다. 1980년대 젊은이들에게 ‘해전사’라는 약칭으로 더욱 친숙한

이 책의 첫 권은 “미군정 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는 정신은 민족정기가 아니라 친일모리배들의 간특한 ‘사기’ 입을 선언한다.”

또한 “분단고착화 과정, 친일파 군상을 해부한 이 책은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비롯해 김구·이승만·여운형을 위시한 대표적 정치 세력들을 재조명한다. 특히 미군정과 이승만에 대한 해부는 일제잔재를 남한에 고착시킨 주범으로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첫 낙인을 찍는다.”(『책이야기』, 한겨레신문사, 1993)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학술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진보화계의 반응을 전한 『한겨레』(2006년 2월 21일자) 기사에서 주진오 교수는 “연구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엄혹한 시기의 성과를 모아 1970년대 말에 펴낸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30년이 지나 비판의 주된 목표로 삼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라고 의문을 던진다. 주 교수는 “정말 논쟁을 하고 싶다면 이후 수없이 많은 연구축적을 쌓은 동시대 근·현대 학사자들을 상대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머리말에서 박지향 교수는 출간 과정상의 우여곡절을 언급한다.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가 막판에 출간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그것도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밝힐 순 없으나, 이 책을 펴내기로 했다가 도중에 접은 출판사 두 곳과 그렇게 된 사연을 알고 있다. 출판사들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때문에 “색다른 고난의 과정”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박지향 교수는 두 출판사에게 “이 작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학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 어떤 현실정치적 함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박 교수가 책의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 계기를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2004년 초가을이었다. 그 무

렵 1980년대에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1980년대 『인식』과 같은 책을 접하고 피가 거꾸로 돌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재인식』의 서론 격으로 1권의 1부 맨 앞에 놓인 이영훈 교수의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는 한술 더 뜬다.

“때맞춰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야 시절에 공부했던 책들 중에 『인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흥미롭게 보도했다. 그러니까 『인식』을 읽으면 왜 노 대통령이 취임을 전후한 몇 차례의 공적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두고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했다’고 비판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책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리 크고 기계적이었나? 미처 몰랐네!

그런데 이걸 또 뭘 말인가? “미찬가지로 현재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에서 ‘세상을 바꾸어보자’고 소리 높여 제창했을 때, 그들의 지향이 무엇인지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사리분간 못하는 정치인들이 흥에 겨워 지껄인 헛소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이영훈 교수는 『인식』에 실린 논문들이 기초하는 공통의 인식론적 기반과 역사관의 지평을 “민족과 혁명”으로 요약한다. 이에 대해 ‘해전사’의 필진이었던 백일 교수는 “『재인식』의 기본 편집 명제는 ‘친일’과 ‘냉전’이라고 맞받는다.

“식민지기는 불공평해 보이거나 문명이 융합되는 과정이고 조선 사람이 근대 문명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며,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주의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민족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민족(일제)을 깎아내리기 때문에(박지향)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교수

신문, 제387호, 2006년 2월 17일자)

해방 전후사를 보는 시각의 현격한 차이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는 모양이다. 우리 교과

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영훈 교수 문제 제기에 어안이병병해진다. “국사 교과서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가운데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된 것을 두고, 쌀을 빼앗아 실어 나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도받았겠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마따나 이토 히로부미는 평화주의자이고, 안중근은 한낱 테러리스트에 불과하겠네. 얼마 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해전사’ 첫 권의 편집자는 이런 말을 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를 이렇게 형편없이 모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한 세대쯤 지나서 박정희·전두환 독재도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이 활개를 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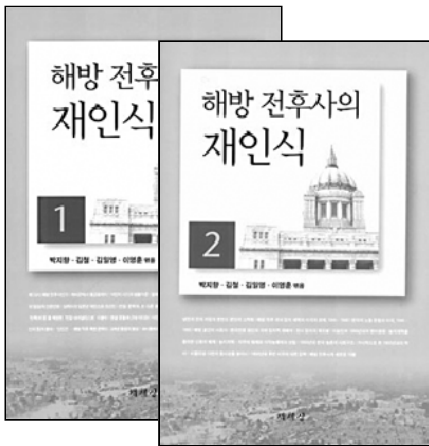
과학은 현대의 종교이며 미신이다

『삶은 기적이다』에서 웬델 베리가 반박하는 현대의 미신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consilience)—지식의 대통합』(최재천·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이다. 에드워드 윌슨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미국의 생물학자다. 지난해 번역된 『통섭』은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2005 올해의 책’으로 뽑히고, 아·태이론물리센터의 올해를 빛낸 과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일보 한국출판문화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우리 언론과 과학계의 호감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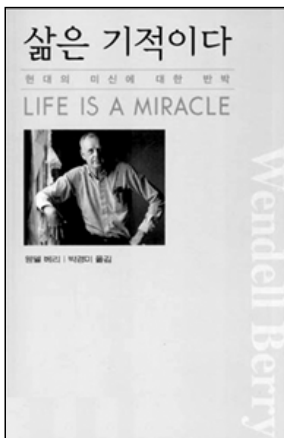
하지만 에드워드 윌슨은 종잡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는 ‘유전적 결정론자’로 비판받는가 하면,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몰두하기도 한다. 역시 지난해 번역된 윌슨의 저서 『생명의 미래』(전방욱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 책에서 그는 돈으로 생명다양성 보존 문제를 푸는 것을 좋게 본다. 또한 생명공학과 유전자 조작을 수용한다.

『통섭』의 옮긴이 서문에서 최재천 교수는 이 책이 “미국 학계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서평자로 제리 포터와 리처드 로터를 꼽는다. 그

2006 04 April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해방전후사의 인식』(전6권), (한길사, 1979~1989)을 겨냥한다. 1980년대 젊은이들에게 ‘해전사’라는 약칭으로 더욱 친숙한 이 책의 첫 권은 “미군정 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는 정신은 민족정기가 아니라 친일모리배들의 간첩한 ‘사기’임을 선언한다.”



『삶은 기적이다』에서 웬델 베리가 반박하는 현대의 미신은 에드워드 월슨의 『통섭(consilience)』—지식의 대통합(최재천·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이다.

자녀해 번역된 『통섭』은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2005 올해의 책’으로 뽑히고, 아·태이론물리센터의 올해를 빛낸 과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일보 한국출판문화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우리 언론과 과학계의 호감을 샀다.



리고는 로티의 비평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다. “나는 로티가 스스로 그 자신의 철학이 엄청나게 좁은 학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웬델 베리와 『삶은 기적이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웬델 베리와 월슨 사이에는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 웬델 베리는 “그는 시종일관 대학에 속한 사람이었고, 나는 늘 학교 밖에 있을 때가 훨씬 속이 편했다”고 말한다. 게다가 웬델 베리는 “과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다면서 무지에 관해선 “상당한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월슨을 “물질주의자”로 규정하는 웬델 베리는 “과학이 아닌 모든 것은 과학이 되어야 하며 또 과학이 될 것이라는 월슨의 확신은 그 자신이 대단히 소유욕이 강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지적으로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 “『통섭』(『삶은 기적이다』에서 consilience의 번역)은 물살은 무섭게 빨리 흐르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추측상으로만 있는 징검다리 돌 하나에서 다음 돌로 뛰어넘어 가면서 미친 듯이 기뻐 날뛰는 인간 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웬델 베리가 반대하는 건 “기계와 기계적 관념이 피조물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우리의 대책 없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월슨의 ‘대책 없음’은 낮이 익다. 월슨의 주장은 단순하고 조악해진 마르크스주의를 연상시킨다. 유난스럽게 ‘과학’을 들먹이는 것이 그렇고, ‘환원론’에 기대는 것도 그렇다.

“인간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는 것뿐”이라는 『통섭』 한국어판 서문의 구절은 ‘인간은 유적(類的) 존재’라거나 ‘인간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총체’라는 마르크스의 언설과 다를 바 없다. 하여 나는 리처드 로티가 인용한 “힐러리 퍼트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러 해도 결국 과학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다”는 최재천 교수에게 마르크스 읽기를 권하련다. 